

스포츠인권 '찾아가는 교육·상담' 호평

전남도체육회 총 7회 실시... 대한체육회 재원 활용

전남도체육회가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12년 스포츠 인권 향상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24개교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지식을 크게 함양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엘리트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과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어온 선수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스포츠인권 교육은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아 사업 예산의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실시된다.

지난 13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정구부와 양궁부 선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강



전남도체육회 주관으로 선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상담이 최근 순천북초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도체육회 제공**

사인 안용준 전남도청 펜싱부 감독으로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 후 14일에는 순천북초에서 순천북초와 순천남산초 야구선수들을 상대로 갑갑룡 담양공고 교사가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20일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팀인 순천공고 럭비팀을 비롯하여 씨름, 유도, 태권도, 우슈콩푸 종목 선수들에게 박종욱 세한대 교수가 교육을 가졌다. 특히 도내 22개 시·군 선수들과 체육정책 담당

관계 기관간의 상호 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팀 지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엘리트 육성에 있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체계가 더욱 확립돼 전남도 체육인들의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욱기자
16.4 X 18.5 cm

全南日報

스포츠인권 '찾아가는 교육·상담' 눈에 띄네

전남도체육회 7회 실시

전남도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수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도체육회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2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12년

스포츠인권 향상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도내 24개교 900여명이 참여하며,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지식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트 선수 출신 교수 및 현장 지도자, 스포츠심리학과 생리학을 전공한 일선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풀을 적극 활용해 교육 및 상담 과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근 스포츠인권 교육 우수 시·도체육회로 인정받아 사업 예산의 전액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타 시·도체육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있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체계가 더욱 확립되고, 우리도 체육인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강인기자 kiko@jinibo.com

19.9 X 7.3 cm